

# 서울대학교 經營學 教育의 社會的 評價와 그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졸업생 및 그 직장 상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崔道成\* · 金載一\*\* · 郭守根\*\* · 朴哲\*\*\*

## 《目 次》

- |                   |                     |
|-------------------|---------------------|
| I. 研究의 背景과 目的     | III. 研究結果           |
| II. 研究方法          | 1. 표본의 특성           |
| 1.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    | 2.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
| 2. 주요 측정변수        | 3. 졸업생의 상사를 대상으로한 조 |
| 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 사결과                 |
| 4. 자료분석 방법        | IV. 결론 및 시사점        |

## I. 研究의 背景과 目的

지난 196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경영학과가 개설된 이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우리나라 기업계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해 왔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는 1975년에 상과대학에서 경영대학으로 분리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經營學 教育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경영학 교육은 그동안의 질적·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선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기업환경과 교육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만약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이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퇴보를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은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助教授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副教授

\*\*\* 東西大學校 商經매스컴學部 教授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을 밝힙니다.

발전이념에 맞게 미래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여 과감히 변화하여, 국내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의 發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들과 이들의 직장상사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교육을 받고 사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과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측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회의 批判을 듣고자 하여 시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미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의 위상을 평가하고 반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향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육좌표를 설정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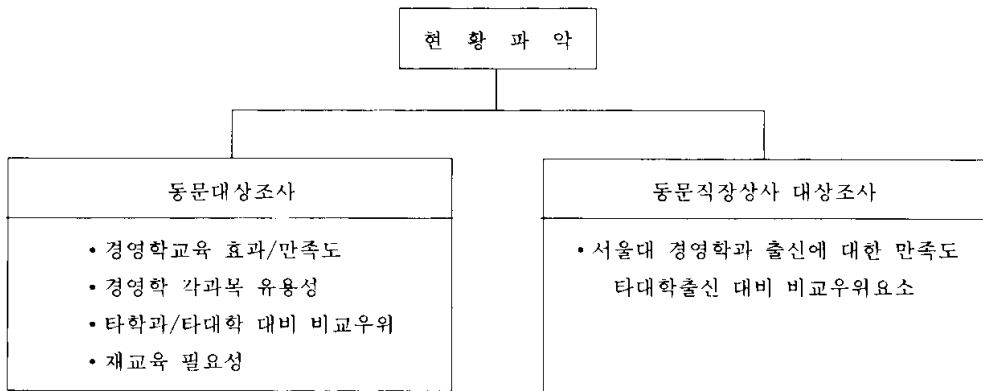
## Ⅱ. 研究方法

### 1.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경영학 교육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導出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도출된 몇가지 연구과제를 가지고 사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면접조사는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문항목을 개발하며, 그리고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사전 면접조사는 졸업생 3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비교우위 요소, 경영학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향후 모교 경영학 교육의 방향 등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일차적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들의 회의와 外部專門家의 자문을 통해 수차례개정되었으며, 서울시내 소재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영학과 졸업생과 경영자 1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문대상용과 그들의 직장상사대상용의 2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설문서의 주요 내용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의 효과, 만족도, 경영학 각 과목의 유용성, 타학과 및 타대학출신에 대한 비교우위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 조사의 개략적 내용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설문지는 83년부터 92년까지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선택된 1,000명과 그 직장 상사에 게 우편으로 배포되었다. 최종적으로 14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설문조사의 개략적 내용

## 2. 주요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변수의 내용과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학과 동문대상 설문

(1) 경영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 교육시설, 교수자질, 그리고 과외활동 등의 4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경영학 지식의 유용도: 경영학 교육이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용했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경영학 각론과목의 유용성: 회계학,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국제경영학, 경영전략, MIS 등 8가지 경영학 각론과목을 유용했던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4) 경영학 교육의 경영자질함양 효과: 의사결정력, 리더십, 협동성, 창의력 등 4가지 경영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모교경영학 교육의 공헌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재교육 필요성: 경영학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 보충해야 할 지식분야: 직장생활 중 보충해야 할 지식분야를 일반경영학, 세부경영학, 외국어, 컴퓨터, 기업실무, 일반교양, 법률 등의 7개분야를 제시하고 한가지를 고르게 하였다.

(7) 자질/품성 중요도: 의사결정능력, 대인관계훈련,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기술, 협동성, 창의력, 도덕/윤리성 등 7개 항목 중에서 한가지를 고르게 하였다.

(8) 더 비중두어야 할 경영학각론: 앞에서 제시한 8가지 경영학 각론과목 중 더 비중

을 두어야 할 과목을 한가지 고르게 하였다.

(9) 경영학 교육방법: 이론강의, 사례토론, 현장실습, 세미나 등 4가지 경영학 교육 방법을 한가지 고르게 하였다.

(10) 향후 경영학 교육방향: 각종시험준비, 직능별 전문가, 통합적 전문가, 직업적 전문가, 경영학자 등 5가지 분야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한가지를 고르게 하였다.

(11) 모교 경영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경영학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2) 타학과/타대학 대비 비교우위요소: 업무지식, 기본능력, 경영자질, 품성 등 4가지 항목에 있어서 타전공/타대학 출신과의 비교우위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동문직장 상사대상 설문

(1)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력에 관한 만족도: 전공지식, 업무수행능력, 적응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컴퓨터, 의사결정력, 리더쉽, 창의력, 외국어, 사교성, 협동성, 윤리성, 성실성 등 13가지 능력 및 자질항목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력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타대학 출신자들에 비한 우위요소: 전공지식, 업무수행능력, 적응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컴퓨터, 의사결정력, 리더쉽, 창의력, 외국어, 사교성, 협동성, 윤리성, 성실성 등 13가지 능력 및 자질항목에 대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출신의 순위를 각각 매기도록 하였다.

## 3) 인구통계적 변수

인구통계적 변수는 기업변수와 응답자 개인변수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다. 기업변수에는 업종,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이, 응답자 개인변수에는 담당업무, 직급, 경력, 전공 등이 포함되었다.

## 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자료의 수집은 1995년 11월 10일에서 1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우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경영학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여 모든 수요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연구과제 수행기간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

〈표 1〉 설문지 회수결과

설문지 종류	표본	배포수	회수수	회수율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 평가	서울대 경영학과 동문	1,000	88	8.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평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직장상사	1,000	57	5.7%
합 계		2,000	145	7.3%

영학과 출신들과 그들의 직장상사를 설문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졸업생 대상의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명부를 표본프레임으로 하여 80년대 이후 졸업생 중에서 기업체 근무가 확인된 1,000명에게 우송되었다. 직장상사용 설문지는 졸업생용 설문지와 함께 1,000부를 우송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문대상용 설문지는 총 88부가 회수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직장상사용 설문지는 총 57부가 회수되어 각각 8.8%, 5.7%의 저조한 회수율을 기록했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응답누락의 수정·보완이라는 편집과정을 거쳐 코딩한 뒤, 총 145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統計分析은 SPSS/PC+의 4.2판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인구통계변수(업종, 기업규모(종업원수), 직장경력, 등)를 주요한 獨立變數로 보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교육 만족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만족도, 타전공/타대학 출신 대비 우위요소, 향후 경영학 교육개선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 등을 從屬變數로 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研究結果

#### 1. 표본의 특성

##### 1) 응답자 소속 기업체의 특성

##### (1) 업종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업종을 크게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제조업체에는 49명(34%), 금융업체에는 48명(33%),

〈표 2〉 업종분포

업종	동문표본	상사표본	전체
제조업	28	21	49(34%)
금융업	27	21	48(33%)
서비스업	33	15	48(33%)
합계	88	57	145(100%)

〈표 3〉 종업원수 분포

종업원수	동문표본	상사표본	전체
250명 이하	29	19	48(33%)
251-2,000명 미만	26	21	47(33%)
2,000명 이상	32	17	49(34%)
합계	88	57	145(100%)

〈표 4〉 연간매출액 분포(무응답제외)

업종	동문표본	상사표본	전체
1천억 원 미만	21	17	38(33%)
1천억-1조 원 미만	19	17	36(31%)
1조원 이상	23	17	41(36%)
합계	63	51	115(100%)

서비스업체에는 48명(33%)이 각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전체 산업의 업종분포를 고려해 볼 때 제조업에 비해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대체로 제조업보다는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소속 기업의 규모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규모를 종업원수와 매출액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종업원수는 250명이하, 251-2,000명, 2,000명 이상의 3가지

범주로 임의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250명 이하는 48개 업체(33%), 251명-2,000명 미만은 47개 업체(33%), 2,000명 이상은 49개 업체(34%)의 분포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문들은 대체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年間賣出額은 1천억 미만, 1천억-1조원, 1조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전체적으로 1천억 미만은 38개 업체(33%), 1천억-1조원 미만은 36개 업체(31%), 1조원 이상은 41개 업체(36%)의 분포를 보였다.

## 2)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 (1) 담당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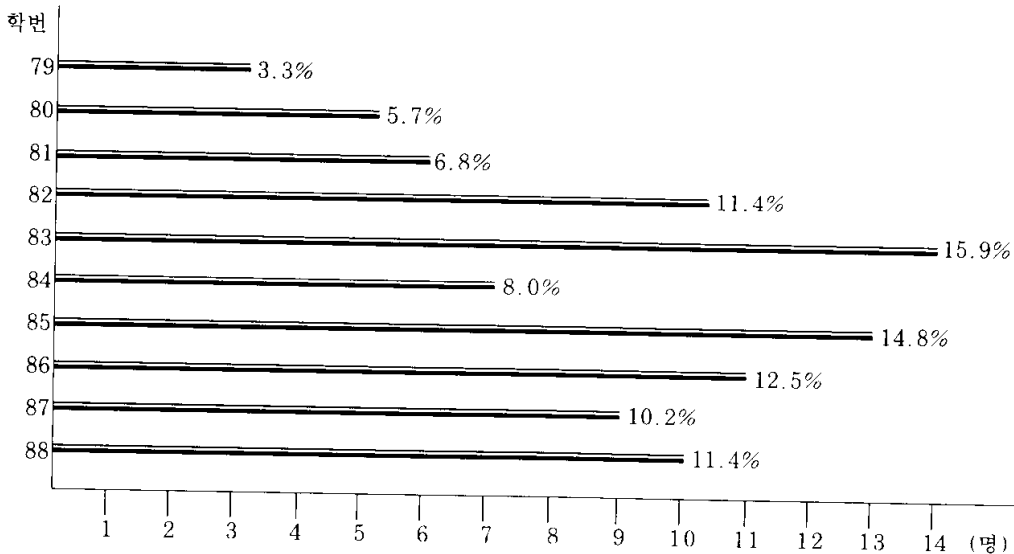
응답한 경영학과 졸업생들의 담당업무는 인사/조직이 3.4%(3명), 영업/마케팅이 30%(26명), 자금/회계가 9%(10명), 기획/전략이 27%(24명), 기타가 30%(26명)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생산관리, 기업총괄 등이 포함되었다.

### (2) 직급과 직장경력

응답자의 직급은 경영학과 졸업생의 경우 평사원이 27명(31%), 과장 이상 관리자가

〈표 5〉 담당업무 분포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자금/회계	기획/전략	기 타	총 계
3(3.4%)	26(30%)	9(10%)	24(27%)	26(30%)	88(100%)



〈그림 2〉 담당업무 분포

60명(70%)로 나타났고, 직장상사의 경우 과장 이하가 19명(33.3%), 부장 이상이 38명(66.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장경력은 경영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는 5년 이하가 49명(55.7%), 6년 이상이 39명(44.3%)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상사의 경우에는 14년 이하가 24명(42.1%), 15년 이상이 33명(57.9%)으로 나타났다.

### (3) 동문응답자 학번분포

동문응답자의 학번분포는 79학번 3명(3.3%), 80학번 5명(5.7%), 81학번 6명(6.8%), 82학번 10명(11.4%), 83학번 14명(15.8%), 84학번 7명(8.0%), 85학번 13명(14.8%), 86학번 11명(12.5%), 87학번 9명(10.2%), 88학번 10명(11.4%)로 나타났다.

### (4) 직장상사의 전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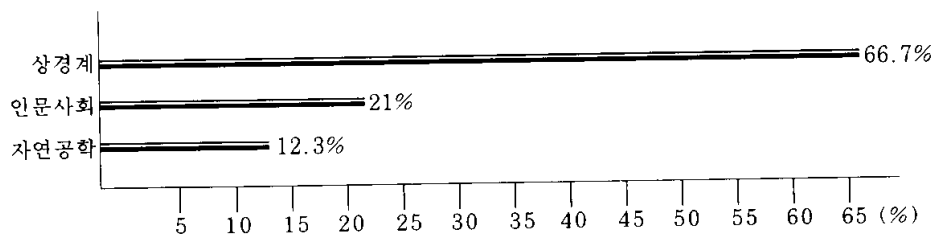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듯이 동문상사의 전공분포는 상경계가 38명(66.7%), 인문사회계가 12명(21%), 자연/공학계가 7명(12.3%)으로 나타났다.

## 2.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 1) 경영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동문들의 경영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에 2.97). 그 중에서도 교육내용(3.05), 교수자질(3.00) 보다는 교육시설(2.66), 과외활동(2.61)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졸업생보다(각각 3.04) 서비스업(2.85)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이 경영학 교육에 대해 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않았다. 그러나, 과외활동에 대한 만족도면에서는 업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F = 3.529, p < .05$ ).

기업의 규모를 종업원수로 볼 때, 종업원수 250명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



〈그림 3〉 동문상사 전공분포



〈표 6〉 업종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용 업	서 비 스 업
총응답자	88	28	27	33
서울대경영교육만족도	2.97	3.04	3.04	2.85
교육내용만족도	3.05	3.21	2.93	3.00
교육시설만족도	2.66	2.61	2.74	2.64
교수자질만족도	3.00	3.14	3.15	2.76
과외활동만족도	2.61	2.93	2.52	2.41

〈표 7〉 종업원수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 계	종 업 원 수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서울대경영교육 만족도	2.98	3.17	2.65	3.06
교육내용만족도	3.06	3.31	2.73	3.09
교육시설만족도	2.64	2.93	2.38	2.59
교수자질만족도	3.01	3.07	2.81	3.13
과외활동만족도	2.60	2.62	2.32	2.81

는 졸업생들의 경영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24로 가장 높았고, 2천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졸업생과 251-1,800명의 중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의 만족도는 각기 3.06과 2.65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 세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 = 2.949, p < .05$ ). 기업규모가 작거나 큰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중간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7〉 참고).

응답자 경력별로 경영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과외활동 만족도에서는 6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진 동문들이 5년이하의 동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F = 3.817, p < .05$ ).

경영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교육내용, 교육시설, 교수자질, 과외활동과 같은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인 만족도와

〈표 8〉 응답자 경력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 계	직 장 경 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서울대경영교육 만족도	2.97	2.94	3.00
교육내용만족도	3.05	2.92	3.21
교육시설만족도	2.66	2.67	2.64
교수자질만족도	3.00	2.98	3.03
과외활동만족도	2.61	2.46	2.79

〈표 9〉 경영학교육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베타( $\beta$ )값	t값
교육내용 만족도	.517	6.67***
교수자질 만족도	.324	4.40***
과외활동 만족도	.176	2.57*
교육시설 만족도	.042	0.63

\*\*\*  $p < .001$ . \*  $p < .05$

회귀식의 유의도  $F = 39.97$  ( $p < .001$ )

$R^2 = .661$

세부항목의 만족도 사이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경영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수자질과 과외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경영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영학유용도/재교육필요성

학부에서의 경영학 교육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시에 얼마나 유용하였는가에 대해 응답자들은 경영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2.97)에 비해 3.44로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재교육의 필요성은 4.20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학부에서의 경영학교육이 자질함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경영학 교육이 의사결정력을 함양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높게 기여했으나(3.73), 협동성(2.68)이나 리더쉽의 함양

(2.76)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0〉에서 보듯이 업종별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경영학 교육의 업무시 유용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업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영학 교육의 창의력 함양면에서의 기여도는 세 업종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 = 3.690, p < .05$ ), 제조업과 금융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교육 필요성에서도 세 업종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 = 5.477, p < .01$ ), 금융업 종사자들이 재교육의 필요성을 4.59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4.21)과 서비스업(3.88)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종업원수로 볼 때 업무시 경영학 교육의 유용도와 재교육의 필요성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참고) 그러나 경영학 교육이 창의력 함양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이 보다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F = 5.872, p < .01$ )

〈표 12〉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경력 차이에 따른 업무시 경영학 교육의 유용도와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 경영학의 유용도와 경영학 교육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470 ( $p < .001$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졸업생들은 실제 직장생활에서 학부에서 습득한 경영학지식이 유용하였다고 응답할수록 경영학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학 교육의 리더쉽, 의사결정능력, 협동성, 창의력과 같은 자질의 함양에 경영학의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이 경영학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10〉 업종별 경영학유용도/재교육필요성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용 업	서 비 스 업
총 응답자	88	28	27	33
업무시경영학유용도	3.44	3.64	3.44	3.27
리더쉽함양	2.76	2.79	2.78	2.73
의사결정력함양	3.73	3.82	3.81	3.58
협동성함양	2.68	2.89	2.59	2.58
창의력함양	3.07	3.25	3.26	2.76
재교육필요성	4.20	4.21	4.59	3.88

〈표 11〉 종업원수별 경영학유용도/재교육필요성

	총 계	종업원수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업무시경영학유용도	3.46	3.62	3.31	3.44
리더쉽함양	2.78	3.10	2.58	2.66
의사결정력함양	3.76	3.97	3.62	3.69
협동성함양	2.69	2.79	2.42	2.81
창의력함양	3.07	3.03	2.62	3.47
재교육필요성	4.21	4.24	4.00	4.34

〈표 12〉 응답자 경력별 경영학유용도/재교육필요성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업무시경영학유용도	3.44	3.33	3.59
리더쉽함양	2.76	2.80	2.72
의사결정력함양	3.73	3.63	3.85
협동성함양	2.68	2.65	2.72
창의력함양	3.07	3.12	3.00
재교육필요성	4.20	4.06	4.38

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영학의 경영자질함양 기여도와 경영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사이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3〉에서 보듯이 경영학 교육이 창의력 함양과 의사결정능력 함양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경영학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타전공자 대비 비교우위정도

〈표 14〉에서 보듯이, 경영학 이외의 타전공자에 비해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업무지식면에서는 비교 우위(3.78)를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으나, 기본능력이나 품성면에서는 별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타 전공자 대비 업무지식 우위는 업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 = 3.959, p < .05$ ), 제조업이 4.14로 가장 높았고, 금융업이

〈표 13〉 경영학교육 만족도와 경영자질 함양기여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베타( $\beta$ )값	t값
의사결정력 함양정도	.202	2.02*
창의력 함양정도	.274	2.69*
협동성 함양정도	.204	1.92
리더쉽 함양정도	.157	1.51

\*  $p < .05$ 회귀식의 유의도  $F = 13.79$  ( $p < .001$ ) $R^2 = .399$ 

〈표 14〉 업종별 타전공 대비 비교우위정도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융 업	서 비 스 업
총응답자	88	28	27	33
타전공 대비 업무지식우위	3.78	4.14	3.74	3.52
타전공 대비 기본능력우위	2.66	2.86	2.52	2.61
타전공 대비 경영자질우위	3.19	3.21	3.11	3.24
타전공 대비 품성우위	2.48	2.75	2.33	2.36

3.74, 서비스업이 3.52로 나타났다.

종업원수별로는 중견규모(251-1,800명)보다 소규모(250명이하)나 대규모기업(2천명 이상)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타 전공자에 비해 비교우위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고). 타전공자 대비 기본능력우위( $F = 2.973$ ,  $p < .05$ )와 경영자질 우위면( $F = 2.974$ ,  $p < .05$ )에서는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 경력별로 보았을 때,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동문(4.21)들이 5년 이하의 동문들보다(3.45) 업무지식 면에서의 타전공자에 대한 비교우위를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F = 18.26$ ,  $p < .001$ ).

## 4) 타학교 대비 비교우위정도

본교 졸업생들이 느끼는 타대학의 경영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비교우위정도는 업무지식면(3.25)과 경영자질면(3.17)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기본능력과 품성면에서는 높지 않았다.(〈표 17〉 참고) 업종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5〉 종업원수별 타전공 대비 비교우위정도

	총 계	업 종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타전공 대비 업무지식우위	3.82	3.90	3.54	3.97
타전공 대비 기본능력우위	2.67	2.93	2.31	2.72
타전공 대비 경영자질우위	3.21	3.48	2.96	3.16
타전공 대비 품성우위	2.48	2.62	2.35	2.47

〈표 16〉 응답자 경력별 타전공 대비 비교우위정도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타전공대비 업무지식우위	3.78	3.45	4.21
타전공대비 기본능력우위	2.66	2.51	2.85
타전공대비 경영자질우위	3.19	3.24	3.13
타전공대비 품성우위	2.48	2.45	2.51

〈표 17〉 업종별 타학교 대비 비교우위정도

	총 계	업 종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총응답자	88	28	27	33
타학교 대비 업무지식우위	3.25	3.50	3.33	2.97
타학교 대비 기본능력우위	2.82	3.14	2.59	2.73
타학교 대비 경영자질우위	3.17	3.25	3.11	3.15
타학교 대비 품성우위	2.52	2.79	2.44	2.36

종업원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업무지식면과 경영자질면에서의 비교우위였다. 특히 250명 이하의 소기업에 근무하는 동문들은 타대학 출신보다 업무지식과 경영자질면에서 우위를 느끼고 있었다(〈표 18〉 참고).

〈표 18〉 종업원수별 타학교 대비 비교우위정도

	총 계	업 종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타학교 대비 업무지식우위	3.28	3.66	2.92	3.22
타학교 대비 기본능력우위	2.83	2.97	2.54	2.94
타학교 대비 경영자질우위	3.17	3.52	3.00	3.00
타학교 대비 품성우위	2.53	2.62	2.23	2.63

〈표 19〉 응답자 경력별 타학교 대비 비교우위정도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타학교 대비 업무지식우위	3.25	2.94	3.64
타학교 대비 기본능력우위	2.82	2.67	3.00
타학교 대비 경영자질우위	3.17	3.10	3.26
타학교 대비 품성우위	2.52	2.49	2.56

응답자 경력별로는 업무지식면에서 직장경력 6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진 동문들이 5년이하의 동문들보다 비교우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9.820, p < .01$ ).

졸업생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과목으로 외국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31.8%), 그 다음으로 기업실무(22.7%), 법률/행정(19.3%), 컴퓨터(11.4%), 세부경영학(8.0%), 일반교양(4.5%), 그리고 일반경영학(2.3%)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제조업에서는 기업실무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가장 많이 나왔고, 금융업의 경우에는 외국어가 앞도적으로 높았고,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어와 기업실무가 비슷하게 재교육 1순위로 나타났다(〈표 20〉 참고).

종업원수별로는 250명 이하에서는 기업실무, 법률/행정, 외국어의 필요가 비슷하게 1순위로 꼽혔고, 251-1,800명에서는 외국어가 앞도적으로 필요성이 높았다. 그리고 2천명 이상에서는 외국어가 가장 높았고 기업실무, 법률/행정, 컴퓨터, 세부경영학이 비슷하게 그 뒤를 잇고 있었다(〈표 21〉 참고).

〈표 20〉 업종별 재교육필요 과목

(%)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융 업	서 비 스 업
총응답자	88	28	27	33
일반경영학	2.3	.0	3.7	3.0
세부경영학	8.0	10.7	3.7	9.1
외 국 어	31.8	21.4	48.1	27.3
컴 퓨 터	11.4	14.3	7.4	12.1
기 업 실 무	22.7	32.1	11.1	24.2
일 반 교 양	4.5	3.6	3.7	6.1
법 률 / 행 정	19.3	17.9	22.2	18.2

〈표 21〉 종업원수별 재교육필요 과목

(%)

	총 계	종업원수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8	27	33
일반경영학	2.3	.0	3.8	3.1
세부경영학	8.0	10.3	.0	12.5
외 국 어	32.2	24.1	46.2	28.1
컴 퓨 터	11.5	10.3	7.7	15.6
기 업 실 무	23.0	27.6	23.1	18.8
일 반 교 양	4.6	3.4	7.7	3.1
법 률 / 행 정	18.4	24.1	11.5	18.8

응답자 경력별로는 5년 이하 동문들은 외국어, 기업실무, 법률/행정을 비슷하게 재교육 1순위로 선정한 반면, 6년 이상 경력자들은 외국어를 단연코 1순위로 꼽았고, 그외에 컴퓨터, 기업실무, 법률/행정과 같은 과목들이 비슷하게 재교육 2순위로 선택되었다. (〈표 22〉 참고)

#### 6) 중점개발 자질/품성항목

대학에서 개발하거나 훈련했다더라면 직장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자



〈표 22〉 경력별 재교육필요 과목

(%)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일반경영학	2.3	4.1	.0
세부경영학	8.0	6.1	10.3
외 국 어	31.8	28.6	35.9
컴 퓨 터	11.4	6.1	17.9
기 업 실 무	22.7	28.6	15.4
일 반 교 양	4.5	4.1	5.1
법률/행정	19.3	22.4	15.4

〈표 23〉 업종별 중점개발 자질/품성항목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융 업	서 비 스 업
총응답자	87	28	27	33
의사결정력	23.9	17.9	29.6	24.2
대인관계훈련	17.0	28.6	11.1	12.1
리더쉽	11.4	10.7	11.1	12.1
커뮤니케이션기술	25.0	17.9	29.6	27.3
협동성	1.1	.0	3.7	.0
창의력	20.5	25.0	14.8	21.2
도덕윤리성	1.1	.0	.0	3.0

질/품성요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25.0%)과 의사결정력(23.9%)이 가장 높게 나왔고, 창의력 20.5%, 대인관계 훈련 17.0%, 리더쉽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참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대인관계가 2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창의력으로 나타났고, 금융업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의사결정력이 29.6%로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력,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자질/품성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별로는 250명 이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의사결정력을 1순위로 꼽았고,

251-1,800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30.8%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기술과 창의력이 2위로 나타났다. 2천명 이상에서는 의사결정력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훈련, 리더쉽, 창의력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표 24〉 참고).

#### 7) 더 비중 둘 과목

향후 경영학과에서 더 비중을 두어야 할 전공과목으로는 재무관리와 마케팅관리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MIS 17.0%, 경영전략 15.9%, 국제경영학 9.1%, 회계학 3.4%, 인사관리 3.4%, 생산관리 1.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 참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경영전략이 25.0%, 금융업에서는 재무관리가 37.0%, 서비스업에서는 마케팅관리가 30.3%로 각각 가장 높게 나왔다.

종업원수별로는 250명 이하에서는 MIS가 24.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경영전략이 똑같이 2순위로 나왔다. 251-1800명에서는 재무관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마케팅관리로 나타났다. 2천명 이상에서는 경영전략이 2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마케팅관리로 나타났다(〈표 26〉 참고).

응답자 경력별로는 6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진 동문들의 경우 재무관리, 경영전략, MIS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5년 이하의 동문들은 마케팅관리, MIS, 재무관리의 순서로 비중을 더 둘 과목을 생각하고 있었다(〈표 27〉 참고).

#### 8) 경영학과 교육방식

경영학의 교수방법으로 가장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하는 방식은 세미나가 30.7%, 사례토론이 29.5%, 현장실습이 28.4%, 이론강의 11.4%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8〉 참고).

〈표 24〉 종업원수별 중점개발 자질/품성항목

	총 계	종업원수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의사결정력	24.1	31.0	15.4	25.0
대인관계훈련	16.1	10.3	19.2	18.8
리더쉽	11.5	3.4	11.5	18.8
커뮤니케이션기술	25.3	31.0	30.8	15.6
협동성	1.1	.0	.0	3.1
창의력	20.7	24.1	19.2	18.8
도덕윤리성	1.1	.0	3.8	.0

〈표 25〉 업종별 더 비중 들 과목

(%)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용 업	서 비 스 업
총응답자	88	28	27	33
회 계 학	3.4	3.6	3.7	3.0
인 사 관 리	3.4	.0	7.4	3.0
재 무 관 리	20.5	10.7	37.0	15.2
마 케 팅 관 리	20.5	21.4	7.4	30.3
생 산 관 리	1.1	3.6	.0	.0
국 제 경 영 학	9.1	14.3	7.4	6.1
경 영 전 략	15.9	25.0	14.8	9.1
M I S	17.0	10.7	22.2	18.2
기 타	9.1	10.7	.0	15.2

〈표 26〉 종업원수별 더 비중 들 과목

(%)

	총 계	업 종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회 계 학	2.3	.0	.0	6.3
인 사 관 리	3.4	.0	.0	9.4
재 무 관 리	20.7	17.2	30.8	15.6
마 케 팅 관 리	20.7	17.2	26.9	18.8
생 산 관 리	1.1	3.4	.0	.0
국 제 경 영 학	9.2	10.3	7.7	9.4
경 영 전 략	16.1	17.2	7.7	21.9
M I S	17.2	24.1	15.4	12.5
기 타	9.2	10.3	11.5	6.3

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사례토론을, 금융업은 현장실습과 세미나를, 서비스업은 사례토론, 현장실습, 세미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별로는 250명 이하와 251-1,800명에서는 현장실습을, 2천명 이상에서는 사례토론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표 27〉 경력별 더 비중 들 과목

(%)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회 계 학	3.4	6.1	.0
인 사 관 리	3.4	4.1	2.6
재 무 관 리	20.5	16.3	25.6
마 케 팅 관 리	20.5	26.5	12.8
생 산 관 리	1.1	.0	2.6
국 제 경 영 학	9.1	10.2	7.7
경 영 전 략	15.9	10.2	23.1
M I S	17.0	18.4	15.4
기 타	9.1	8.2	10.3

〈표 28〉 업종별 경영학과 교육방식

(%)

	총 계	업 종		
		제 조 업	금 융 업	서 비 스 업
총응답자	88	28	27	33
이 론 강 의	11.4	10.7	14.8	9.1
사 례 토 론	29.5	39.3	18.5	30.3
현 장 실 습	28.4	21.4	33.3	30.3
세 미 나	30.7	28.6	33.3	30.3

있었다(〈표 29〉 참고). 응답자 경력별로는 6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진 동문들은 사례토론을, 5년 이하의 동문들은 현장실습을 가장 중요시했다(〈표 30〉 참고).

#### 9) 경영학과 학부교육목표

경영학과 학부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통합전문가와 직능별 전문가를 똑같이 1위로 선택하였고(38.6%), 그 다음으로 회계사, 광고인, 경영컨설턴트와 같은 직업적 전문가(20.5%)와 경영학자(2.3%)를 선택하였다.(〈표 31〉 참고) 응답자의 경력에 차이는 없었다.

〈표 29〉 종업원수별 경영학과 교육방식

(%)

	총 계	종업원수		
		250명 이하	251-1,800명	2천명 이상
총응답자	87	29	26	32
이론강의	11.5	20.7	7.7	6.3
사례토론	29.9	24.1	23.1	40.6
현장실습	27.6	31.0	38.5	15.6
세미나	31.0	24.1	30.8	37.5

〈표 30〉 경력별 경영학과 교육방식

(%)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이론강의	11.4	4.1	20.5
사례토론	29.5	22.4	38.5
현장실습	28.4	40.8	12.8
세미나	30.7	32.7	28.2

### 3. 졸업생의 상사를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 1)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서울대 졸업생의 상사들이 평가한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1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수행능력이 4.16으로 가장 높았고, 창의력 4.14, 전공지식 4.07, 의사결정력 4.04, 윤리도덕성 3.86, 성실성 3.79 적응력 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성(3.19), 협동성(3.19)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업종별로도 이러한 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32〉 참고).

기업규모별(종업원수)로는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동문들의 사교성( $F = 3.851, p < .05$ )과 협동성( $F = 3.545, p < .05$ )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표 33〉 참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에 대한 만족도를 상사의 직급별로 구분하여 볼 때, 과장급 이하의 상사

〈표 31〉 경력별 경영학과 학부교육 목표

(%)

	총 계	직장경력	
		5년 이하	6년 이상
총응답자	88	49	39
직능별전문가	38.6	36.7	41.0
직업전문가	20.5	22.4	17.9
통합전문가	38.6	36.7	41.0
경영학자	2.3	4.1	.0

〈표 32〉 업종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 계	업 종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총응답자	57	21	21	15
서울대 인력 만족도	4.11	4.10	4.14	4.07
전공지식만족도	4.07	4.19	4.10	3.87
업무수행능력만족도	4.16	4.24	4.00	4.27
적용력만족도	3.75	3.76	3.71	3.80
외국어	3.60	3.67	3.81	3.20
커뮤니케이션능력	3.67	3.57	3.71	3.73
컴퓨터실력	3.61	3.52	3.62	3.73
창의력	4.14	4.05	4.10	4.33
리더쉽	3.44	3.52	3.48	3.27
의사결정력	4.04	4.05	4.00	4.07
사교성	3.19	3.33	3.24	2.93
성실성	3.79	3.81	3.76	3.80
협동성	3.19	3.33	3.29	2.87
윤리도덕성	3.86	3.86	3.86	3.87

는 협동성 면에서 부장급 이상의 상사에 비해 동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F = 4.123, p < .05$ ), 윤리도덕성면에서는 부장급 이상의 상사가 과장급 이하의 상사보다 동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F = 8.768, p < .01$ , 〈표 34〉 참고).

〈표 33〉 종업원수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응답자	총 계	종업원수		
		210명 이하	211-2,000명	2천명 이상
	58	19	21	18
서울대 인력 만족도	4.10	3.95	4.10	4.28
전공지식만족도	4.09	3.84	4.10	4.33
업무수행능력만족도	4.17	4.21	4.05	4.28
적응력만족도	3.78	3.68	3.76	3.89
외국어	3.62	3.47	3.67	3.72
커뮤니케이션능력	3.67	3.42	3.81	3.78
컴퓨터실력	3.62	3.42	3.62	3.83
창의력	4.16	3.89	4.33	4.22
리더쉽	3.43	3.32	3.62	3.33
의사결정력	4.02	3.95	4.05	4.06
사교성	3.19	2.74	3.29	3.56
성실성	3.79	3.63	3.86	3.89
협동성	3.19	3.27	3.29	3.56
윤리도덕성	3.86	3.63	3.90	4.06

상사의 경력으로 구분하여 볼 때, 14년 이하의 경력을 갖고 있는 상사에 비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상사가 경영학과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F = 3.401, p < .05$ , 〈표 35〉 참고). 외국어 면에서도 경력 14년 이하의 상사보다도 경력 15년 이상의 상사가 졸업생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 = 8.463, p < .05$ )

## 2) 타대학 출신자들과 대비한 우위요소

직장의 상사들에게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을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의 경영학과 졸업생들과 13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겨 비교평가하게 한 결과 각 항목의 평균순위값은 〈표 36〉와 같이 나왔다. 전공지식, 업무수행능력, 창의력, 컴퓨터 실력, 윤리도덕성 면에서는 1위에 근접했으나,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성실성 면에서는 다른 3개대학 출신에 비해 별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적응력, 리더쉽, 사교성, 협동성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출신에 비해 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표 34〉 응답자 직급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 계	직 급	
		부장 이상	과장 이하
총응답자	57	38	19
서울대 인력 만족도	4.11	4.18	3.95
전공지식만족도	4.09	4.18	3.89
업무수행능력만족도	4.18	4.21	4.11
적용력만족도	3.79	3.84	3.68
외국어	3.63	3.76	3.37
커뮤니케이션능력	3.67	3.74	3.53
컴퓨터실력	3.61	3.68	3.47
창의력	4.16	4.18	4.11
리더쉽	3.44	3.50	3.32
의사결정력	4.02	4.00	4.05
사교성	3.18	3.26	3.00
성실성	3.79	3.92	3.53
협동성	3.21	3.39	2.84
윤리도덕성	3.86	4.05	3.47

## V. 결론 및 시사점

동문과 동문상사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육에 관한 평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들이 평가한 경영학과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았으나, 졸업생들의 경영학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제조업이나 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최근의 졸업생보다는 졸업한지 6년 이상 된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경영학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 교수자질에 관한 만족도, 그리고 과외활동에 관한 만족도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수행시 경영학 교육의 유용도는 경영학 교육의 만족도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은 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경영학 교육이 의사결정력 함양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동심이나 리더쉽의 함양에는 별로



〈표 35〉 응답자 경력별 경영학교육 만족도

	총 계	직장경력	
		14년 이하	15년 이상
총응답자	57	24	33
서울대 인력 만족도	4.11	3.96	4.21
전공지식만족도	4.09	4.00	4.15
업무수행능력만족도	4.18	4.13	4.21
적응력만족도	3.79	3.83	3.76
외국어	3.63	3.25	3.91
커뮤니케이션능력	3.67	3.63	3.70
컴퓨터실력	3.61	3.38	3.79
창의력	4.16	4.13	4.18
리더쉽	3.44	3.33	3.52
의사결정력	4.02	3.96	4.06
사교성	3.18	3.17	3.18
성실성	3.79	3.71	3.85
협동성	3.21	3.00	3.36
윤리도덕성	3.86	3.79	3.91

〈표 36〉 4개대학 출신 비교평가(평균순위값)

분 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전공지식	1.18	2.29	3.01	3.30
업무수행능력	1.38	2.20	2.50	3.56
적응력	2.32	2.29	1.73	3.32
외국어능력	1.69	1.94	3.41	2.69
커뮤니케이션능력	2.00	2.07	2.38	3.23
컴퓨터실력	1.54	2.21	3.05	2.82
창의력	1.36	2.11	2.94	3.20
리더쉽	2.21	2.27	1.71	3.58
의사결정력	1.43	2.57	2.13	3.54
사교성	3.11	1.66	1.88	3.05
성실성	2.00	2.73	2.36	2.51
협동성	2.85	2.54	1.61	2.69
윤리도덕성	1.63	2.68	2.66	2.64
총평균	1.90	2.27	2.41	3.08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학 교육의 창의력 함양정도와 의사결정력 함양정도가 경영학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학외 타전공자/경영학 전공 타대학 출신과의 비교우위정도에서는 업무지식면의 우위와 경영자질면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능력이나 품성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소기업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타전공/타대학에 대한 비교우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문들의 재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외국어, 기업실무, 법률/행정, 컴퓨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근무하는 동문들은 기업실무를, 금융업은 외국어, 서비스업에는 외국어 및 기업실무의 필요성이 높았다.

다섯째,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자질과 품성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력, 창의력, 대인관계 기술, 리더쉽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대인관계와 창의력, 금융업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의사결정력,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력,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향후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경영학 과목으로는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MIS, 경영전략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에서는 경영전략이, 금융업에서는 재무관리,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마케팅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경영학의 교수방법으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는 세미나, 사례토론, 현장실습, 이론강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학과의 학부교육목표는 통합전문가 또는 직능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업적 전문가(회계사, 광고인, 경영 컨설턴트 등)의 순이었다.

여덟째, 졸업생들의 상사를 대상으로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본 결과, 업무수행능력, 창의력, 전공지식, 의사결정력, 윤리도덕성, 성실성에서는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사교성, 협동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출신과 비교하여 볼 때, 전공지식, 업무수행능력, 창의력, 컴퓨터실력, 윤리도덕성 면에서는 1위에 근접했으나,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성실성 면에서는 별 우위가 없었고, 적용력, 리더쉽, 사교성, 협동성에서는 오히려 타대학 출신에 비해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는 몇가지 면에서 개선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의사결정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리더쉽, 협동성 등 경영자질과 관련된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강화, 세미나, 사례토론, 현장실습들의 교수방법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먼저 경영학과 졸업생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외국어 필수 교과목을 확대하여 경영학과 재학시에 현재보다 더 많은 외국어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과 전공과목의 경우에도 외국어 강의과목 수를 늘리고, 원서교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외국어 능력을 졸업요건화 하는 것이다. 졸업시험이나 논문을 대신해서 TOEFL 또는 TOEIC 성적 몇점 이상을 졸업요건화 함으로써 대학재학 중에 스스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外國大學과의 교환학생제도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재학중에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과 생활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과목에서 전산처리가 요구되는 과제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 추세에 맞추어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제를 강화하고, 통신망을 통한 과제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 경영학 교과목의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경영학과에서 운영해야 할 교과목은 바로 경영정책, 경영전략론, 경영정보론, 경영분석, 경영사례연구 등과 같은 통합경영학교과(統合 經營學 教科)이다. 현재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국제경영학, 회계학 등으로 세분화된 경영학은 전공간의 상호 접촉이 부족하여, 경영학과 학생들은 '단절된 경영학'을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은 하나의 전체적 개념이므로 통합적인 경영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도 각 분과별 전공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교과목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발표 및 토론식 수업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이론강의식 수업만으로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 기업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의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발표 및 토론식의 '참여형' 또는 '개방형'의 수업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제를 스스로 선정하고 스스로 해결한 결과를 타수강생 앞에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수강생간에 팀을 이루어 좋은 경영사례를 개발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표 및 토론식 수업 비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강좌당 수강학생수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先決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시설면에서도 현재 책상과 칠판으로 이루어진 평면적인 강의실 형태를 탈피한 원탁형, U형, 계단식 등과 같은 입체적이고 개방적인 강의실이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영학은 이론과학이라기보다는 실천과학(實踐科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기업현장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사장(死藏)된 경영학 지식이 되고 말것이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인턴 교과목의 개설, 실무계에 있는 경영자를 초빙하여 특강실시, 또는 기업체 방문 교과목의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대학재학 중에 기업현장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경영학과는 다른 어떤 학과보다도 규모나 정원면에서 비대하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서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전임교수의 확보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교수대비 학생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특성 있는 교과목의 개발, 토론식 수업의 강화, 현장 밀착교육의 실시 등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교수수를 늘이기 위해서 대학은 재정문제와 같은 결코 쉽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금교수제, 초빙교수제, 산업체 겸임교수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협동성, 성실성, 정직성, 사교성, 인내성과 같은 기본적인 품성을 지닌 인재들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품성들은 사회생활에서 단시일내에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품성개발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품성개발은 직접적인 교육효과로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은 건전한 품성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씨클활동)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간의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M.T.(membership training)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합숙생활을 통해서 인내심, 협동성 등을 양성하도록 하며, 경영윤리 내지 기업윤리와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여 윤리성을 함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출석관리와 성적관리를 통해서 학업에서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지도교수와의 정기적 면담을 실질적으로 제도화 하여 한 학생이 대학 4년 동안 성숙한 인격과 건전한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낮은 설문지 회수율로 인하여 졸업생들과 이들 상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졸업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야 보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정량적인 자료만 분석하였는데, 더 심도있는 교육방법의 개선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강호성·하영원·민재형·이정선(1997), "경영대학원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1(1), 69-92.
- 곽수근(1990), "경영학과의 특성과 발전방향," 「대학교육」, 43, 104-112.
- 김기영(1996),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교수방법에 관한 탐구,"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연구 발표회 논문집, 34-35.
- 김원수(1985), "경영학과 가치 및 사상-경영학 사상사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탐색," 「경영논집」, 21-33.
- 김원수(1990), "한국에 있어서의 경영학 연구, 교육의 동향과 방향," 「경영논집」, 제24권, 제 4 호, 1-25.
- 김정년 외(1988), 「한국경영학 30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행엽(1978), "한국경영학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1990), "경영학 교육과 연구의 현재와 미래," 경영학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손태원·권태형(1989), "경영학 분야 교수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발표논문집, 235-247.
- 아주대학교 종합연구소(1981), 「경영학 분야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개발」, 수원: 아주대학교종합연구소.
- 이규상(1996),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능력과 경영학교육," 「경영학연구」, 제25권 2호,

355-379.

이학종(1994). "한국경영학과 사례연구." 「경영학연구」, 제23권 2호, 117-128.

임종원·박철·송종호(1992). "산업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그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학과의 역할과 교과목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경영논집」, 제26호 제1,2호, 176-199.

지용희·강호상(1996). "경영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연구 발표회 논문집, 71-95.

최도성·김재일·곽수근·박철(1996). "경영학 교육의 사회적 평가 및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1-72.

한국경영교육위원회(1980). 「경영학 교육의 평가 및 발전연구」. 서울: 한국경영교육위원회.

한국경영학회(1996). 「한국경영학의 재조명과 교육방향」. 한국경영학회 창립4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 「경영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일청(1982).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18(3), 120-143.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1979), *Management and Management Education in a World of Changing Expectations*, Washinton D.C.: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Dymsza, W.A. (1982),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Managers for Future Decad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4(Winter), 9-18.

Porter, Lyman W. (1988), *Manage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Drift or Thrust into the 21st Centu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